



食品安全基準 整備

—FAO・WHO서 共同作業—

식료품 및 보건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유엔의 한 委員會는 세계 식료품의 질적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委員會의 임무는 모든 형태의 '식품 특히 통조림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외에도 고의로 식품에 색소를 첨가하는 행위나 부지부식간에 식품에 남

는 살충제 및 礦物로 인한 보건상 위해에 대해서도 분석검토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 委員會는 1961년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 위원회의 건의 사항은 주로 유럽지역인 세계 30개국 이상이 실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委員會는 우유·치즈·육류·과일통조림·야채·생선중 1백여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 기준은 각 식품의 정확한 품목별 기준을 규정해 놓은 두툽한 規程集속에 담겨 있다.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수정에도 위원회 구성국이나 국제기구들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기준이 확정되면 이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수락하도록 기준 권고안을 통고한다.

각국 정부의 수락절차가 끝나면 이 기준은 기준규정집에 수록되어 발표된다.

原料難...英國包裝業界

英國에서는 食料品등을 包裝하기 위한 材料가 最近 深刻한게 不足한 樣相을 보이기 시작하여 슈퍼마켓이나 小賣店의 큰 골치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包裝材料인 프라스틱, 종이, 통조림의 통등의 生産이 原料不足으로 말리는데다가 最近의 景氣上昇은 그들 製品에 대한 需要를 急增시켰으며 製造會社의 生産能力의 限界가 確實해 졌기 때문이다.

이 問題는 아직은 消費者를 괴롭히는 段階까지는 到達되지 않았으나 小賣業界와 슈퍼마켓 業界뿐만 아니라 食品製造業界로서는 대단히 深刻한 問題가 되어가고 있으며, 一部에

서는 包裝材料의 不足이 더욱 甚해지면 流通 業界를 크게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豫測하는 사람도 있다.

英國에서 쓰이고 있는 包裝材料는 주로 종이, 板紙가 가장 많고 다음 金屬, 플라스틱, 유리의 순이며 이들이 全 包裝材料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包裝材料不足은 이들 모든 部門에 波及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영향이 큰것은 最近 그 需要가 急增하고 있는 플라스틱 製品이며 이의 不足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程度가 되었다.

플라스틱 製品메이커는 大規模的인 石油化學會社로서 플라스틱은 그 副產物로서 生産되는 격이지만 現在 石油化學業界는 世界的인 供給 不足狀況에 直面하고 있어 플라스틱을 生産하는 것 보다 利益이 높은 製品生産을 서두르는 傾向으로 바뀌었다. 또한 包裝業界는 最近 全 業界에서도 플라스틱 需要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 原材料確保는 극히 치열한 競爭狀況下에서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英國政府가 인플레이 抑制를 위해서 實施하고 있는 「賃金」 物價抑制政策으로 플라스틱原料인 石油化學製品價格이 國際價格보다도 훨씬 낮은 水準에 있고 이것이 海外的 石油化學會社가 플라스틱 原材料를 英國에 供給하지 않게 된 것도 不足現象을 招來한 要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종이든가 보드의 경우도 플라스틱의 경우와 비슷하며 投資에 대한 收益이 他産業에 比하여 多少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新規投資가不振한 傾向에 있었다.

이것이 最近 景氣上昇으로 需要가 急增된 結果, 包裝業界에의 종이 供給量이 훨씬 줄게끔 事態가 변모하고 말았다. 包裝材料用紙를 生産하고 있는 메이커는 지금까지 注文으로부터

發送에 이르기까지 5~6週間으로 請負를 맡아 왔는데 그것이 最近에는 어떤 製品은 6개월도 기다려야 할 狀態로 변했다고 한다.

英國의 經濟紙등에 서는 플라스틱, 종이, 유리, 알미薄板등의 主要包裝材料가 果然 어느程度 不足한가를 正確히 測定하기란 힘든 일이라 하고 있으며 또 包裝用 原材料메이커들도 現在의 需要急增은 果然 틀림없는 需要때문인지 아니면 將來의 不足激化를 豫見한 在庫充當을 爲한 假需要가 相當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確然치가 않다고들 말하고 있다.

한편 食品工業界에서는 現時點에서는 이력저력 견디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包裝用 材料의 不足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고 각기 어떤 對策을 講究하기 시작 했다.

말하자면 大 맥주會社에서는 急速한 需要增大에 對處할 수 있도록 在庫充實을 期하는 한편 맥주병 供給을 確實하게 하고져 對策을 推進中에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緊急對策에도 不拘하고 流通業界의 事業計劃에 큰 暗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英國에서도 有名한 食品會社인 데스코社의 경우를 例로 든다면 이 會社에서도 包裝材料의 不足은 深刻化 되고 있어 仕入 디렉터에 의하면 그의 在庫不足은 入社 以來 처음이라고 한다.

수많은 製品의 出荷가 円滑히 이루어지지 않을 程度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最近에는 食品業界에 있어서 包裝材料는 食品保存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購買意慾을 높이고 賣上을 느린다는 重要한 役割을 하여 왔기에 包裝材料不足은 앞으로의 業績에 미칠 影響이 대단히 큰 것이 될 것이다.

國際 커피協定 難産

커피의 安定된 需給을 目標로 第2次 國際 커피 協定은 지난 9월에 期間이 끝났는데 새로 第3次 協定交涉과 이의 成立을 둘러싸고 生産國과 消費國 또는 消費國內部에서 치열한 흥정이 展開되고 있어 第3次 協定の 確立까지에는 「難産」이라는 고비를 몇고비 넘겨야만 할 것이다.

우선 第2次 協定の 期限이 끝나기에 앞서 生産國 11개國이 른은 會議을 열고 73年 10月부터 74年 9월에 이르기까지의 新커피年度에 있어서 過去 3개年の 平均輸出 可能量의 10% 程度, 輸出總量으로 550萬袋를 市場에 내는것을 保留시킨다는 計劃에 合議했다고 하였다.

이 合議는 價格引上을 노리는 生産國側의 自主規制라고 받아들여지기로 했지만 이 會議에서는 自主規制등을 스프스하게 하기 위한 監督機關으로서의 生産國委員會의 組織되기까지 檢討되었다고 전해졌다. 말하자면 우선 生産國側만으로 새로운 措置를 講究하고자한다면 輸出國側에 對하여 消費國 즉 輸入國側은 어떠한가. 消費國中 9個國으로 構成된 歐州共同體는 요사이 第3次 協定作成 때문에 再交涉에 即刻 들어가도록 ICO(國際 커피機構) 理事會에 대하여 壓力을 加하여 指示를 하도록 하는데 意見一致를 보았다고 한다. 外電에 따르면 暫定的인 處置로서 앞으로 2年間 第2次 協定の 繼續이라는 것은 整頓이 되어, 生産, 消費國間의 休戰은 如何든 손아귀에 넣는것, 雙方은 각각 活發히 움직여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協定에의 突破口를 發見코져 摸索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反對로 각기 立場과

地域에 有利한 條件整備에 着手하였다고도 할 수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新協定은 2개의 큰 難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輸出 쿼터(割當) 즉 輸出國에 대한 出荷割當이며 또 하나는 모든 形態의 커피의 平均價格水準을 安定시키자는 問題인 것이다. 輸出國으로서는 價格을 조금이라도 引上시키거나 去來의 有利한 時點, 市場 앞으로 거기에 맞는 出荷를 하고자 希望하고있는 反面 消費國側으로서는 價格을 安定시키면서 安定된 供給이 바람직함을 변함없는것으로 친다면 두가지 問題는 다같이 雙方이 折衝될 接點을 찾기란 크게 難産일것 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EEC 9個國은 生産國들과의 再交涉을 強力히 要求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輸出쿼터, 그의 再割當作業만 이라도 落着시키기까지에는 적어도 數個月은 걸린다는것이 全體의 見解이며 또한 價格準備問題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現在, EC로서는 커피 去來價格에 上下限의 幅을 갖이고 그 幅을 파운드당 62—66센트로 바란다는 案도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편 4개 主要生産國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보리코스트, 폴트칼領양고라)는 生産國會議에 앞서서 른돈에서 談合하고 新年度에 있어서 커피의 오더리 마케팅(秩序있는 輸出) 問題를 協議했지만 이들은 價格引上등을 目標로 아이보리코스트에 國際커피販賣會社設立의 構想도 重要的 檢討事項이었다고 하며 이와 같이 各國이 (어떻든 新協定을 確立하고 秩序있는 需給關係)를 바라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南北問題, 南쪽中의 先發, 後發隔差) 先進國들의 흥정등이 微妙한 그림자를 떨어트리 고 이 問題도 解決에는 아직도 많은 時間을 必要로 할 것 같다.